

News

신규 코픽스 10개월 만 상승 반전...전달비 0.08%p ↑

아시아경제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상승 반전...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8%로 전달보다 0.08%p 올라... 10개월 만의 상승...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풀이...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는 0.05%p 하락...

IMM PE, 신한금융에 1,000억 추가 투자

서울경제

IMM PE가 1,0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지주 지분을 추가로 확보... 지난해 7,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이은 추가투자... 지분율도 4%대로 올라갈 예정... 오렌지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던 신한금융지주 보통주가 매매 대상... IMM PE는 추가투자를 통해 신한금융지주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수수료 2배 줘도 싫다...사모펀드 거부하는 은행들

이데일리

국내 대형은행들이 사모펀드 수탁서비스를 외면... 금감원은 지난 7월 수탁사에 '사모펀드 운용사 감독 및 보고'의무를 부과... 은행들은 수탁사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 수탁보수는 2~4bp 수준... 위험 대비 수익성 낮은 편...

8월 말 은행 연체율 0.38%...전월비 0.02%p 상승

머니투데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해 0.38%로 집계... 7월 말보다 0.02%p 높은 수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7%로 7월 말보다 0.03%p 올라...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달과 같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27%로 한 달 전보다 0.01%p 올라...

상반기 불완전판매율 높은 보험사는 DGB·KDB·KB생명 순

조선일보

상반기 보험사들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DGB생명, KDB생명, KB생명 순... DGB생명은 불완전판매율 0.79%를 기록... 가장 높은 수치... 생보 '빅3'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각각 0.12%, 0.1%, 0.17%를 기록... 손보사의 경우 불완전 판매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장1호' GA 탄생...에이플러스에셋, 내달 말 상장 예정

머니투데이

국내 첫 상장 GA가 탄생할 예정... 에이플러스에셋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공모금액은 밴드 상단기준 344억원 규모... 11월 말 상장 예정... "코스피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에이플러스에셋이 되겠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판매 로비 의혹 사실무근"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은 회사를 겨냥해 불거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와... NH투자증권은 사실과 다른 의혹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

증권사도 내년부터 배출권 사고판다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도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등으로 참여자를 늘릴 예정... "증권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많아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이 실수요자로 한정돼 태생적으로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